

오늘의 해양쓰레기

오션, 임팩트 소개 (1)
오션의 해양쓰레기 조사 연구 성과는?

최초로 공개하는 오션의 모든 연구원 이야기 (1)

오션 홍보 책자 발간하다

오션 국제협력팀, 서울에 업무공간 마련

작품명 | 바다 빼기 바다

작가 | 김정아

아름다운 바다, 그 안의 자유로운 생물들,
바다에서의 추억이 사라지고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한다.
지구와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다.



CONTENTS

특집

- 오션 임팩트 소개 (1) _____ 4
오션의 해양쓰레기 조사 연구 성과는?
- 최초로 공개하는 오션의 모든 연구원 이야기 (1) _____ 17
- 오션 홍보 책자 발간하다 _____ 26
- 오션의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_____ 30

최근활동

- 해안쓰레기모니터링 16년 결과, 해양과학학술대회에서 발표 _____ 34
- '제29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오션, 낚시쓰레기의 심각성 홍보 _____ 36
- 고등학생부터 예술가까지 120명에게 강의 _____ 38
- 오션 국제협력팀, 서울에 업무공간 마련 _____ 40

세미나 중계

- 베트남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지지, _____ 41
가치-신념과 해양쓰레기 위험 경험에 달려

사진 낚는 어부의 동남아 바다산책

- 대나무 바구니 vs 비닐봉지 - 베트남 무이네 (2) _____ 44



해양환경 뉴스

- 매년 집중호우 뒤 바다·담에 ‘쓰레기섬’...정화주간 운영 ————— 49
- 고흥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맹활약, 청정바다 만든다
- “해상 물류·해양 쓰레기 문제, 시로 해결하자”

언론보도

-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션! ————— 50
2024년 6월(바다의 날 행사)
 - 한국수산자원공단, 대학생 동아리와 해양교육정화활동 추진
 - 수산자원공단, 부경대와 ‘바다식목일’ 기념 해양 교육·정화 활동
 - 부산해경, 바다의 날 기념 ‘수중·연안 정화와 캠페인’ 펼쳐

공지사항

- 하반기 YP 채용 ————— 51
- 새로운 후원자 소개 ————— 52
- 5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 53
- 세미나 공지 ————— 55



오션, 임팩트 소개 (1) 오션의 해양쓰레기 조사 연구 성과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연구 생산 145건, SCI급 논문 65.6%, 정책 과정 기여 44건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조사연구 성과 (2010~2023년 누적)

누적 145 건의 연구 생산량	정책, 분포, 교육, 영향 등 6 개의 대주제로 연구수행	발표한 논문 중 SCI급 논문 65.5%	발표한 논문 중 KCI등재 논문 34.5%
시민과학 활용 연구 35.9%	정책과정에 기여 44 건		

편집자 주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하, 오션)의 지난 14년간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¹. 이 보고서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가치평가 전문연구기관인 (주)한국사회가치평가에서 수행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오션의 미션과 비전에 비추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한 전략의 목표, 접근 방식, 사업과 활동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오션의 사업과 활동 성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생태계에 일으킨 변화를 정량, 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오션의 사업과 조직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실제 사회에 일으킨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성과 평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오션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연대협력 분야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두 명의 설립자와의 인터뷰, 각 사업과 활동이 가져온 직간접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과는 수치와 비율 등 정량적 지표로 제시되었고, 국내외 협력단체에 대한 설문 결과에 기반하여 협력단체에서 일어난 변화, 정성적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는 오션 임팩트 중 첫 번째 조사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다음 호에는 오션 임팩트 2. 교육 및 홍보, 3. 연대협력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전문 지식의 공동생산

Impact 1. 조사연구 성과

해양쓰레기 전문 지식의 공동생산 및 증거기반 정책 결정 촉진 성과

해양쓰레기 전문 지식 창출 성과

해양 오염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원인부터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 문제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필수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양환경 및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145건의 연구 성과를 누적했습니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해양쓰레기 정책, 해양쓰레기의 양과 종류 및 분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을 다루었고, 해양환경 교육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오션은 해양쓰레기 연구 자료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꾸준히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145건의 연구 중 논문으로 출간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건은 33.8%(49건)입니다. 출간 논문 29편 중 SCI급² 논문은 65.5%(19건), KCI³등재 논문은 34.5%(10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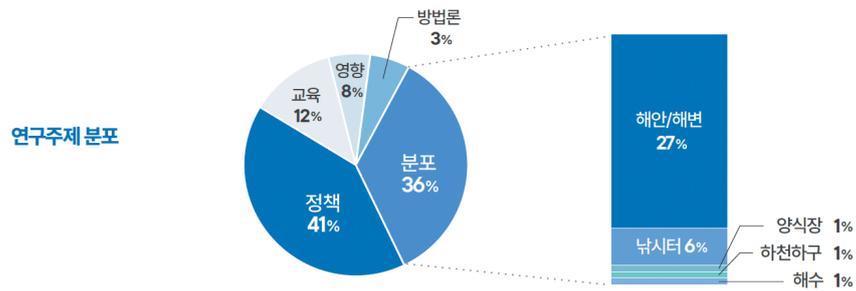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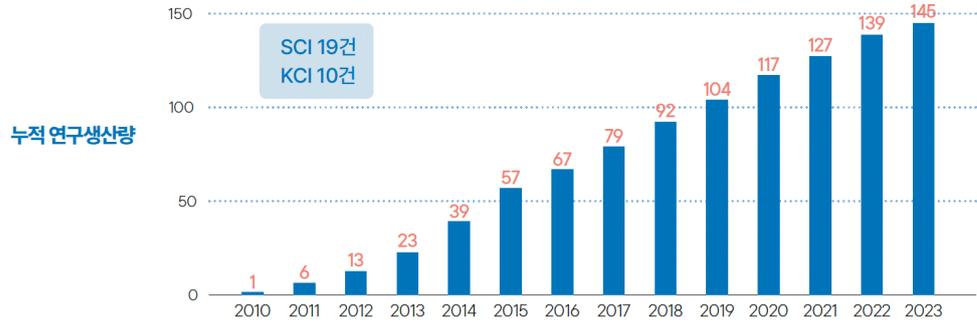
오션은 해양쓰레기 정책, 분포, 교육에 대해 2010년부터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지금처럼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지 않았던 2013~2015년에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한 SCI급 논문 중 오션이 발표한 논문은 연도별로 최대 2.14% 비율을 차지합니다. 해양쓰레기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생산해온 것입니다.

1 오션 임팩트 보고서 다운로드

<https://www.ocean.net/education/?q=YToxOntzOjEyOjRZl3b3JkX3R5cGUl O3M6MzoiYWxsljt9&bmode=view&idx=28011012&t=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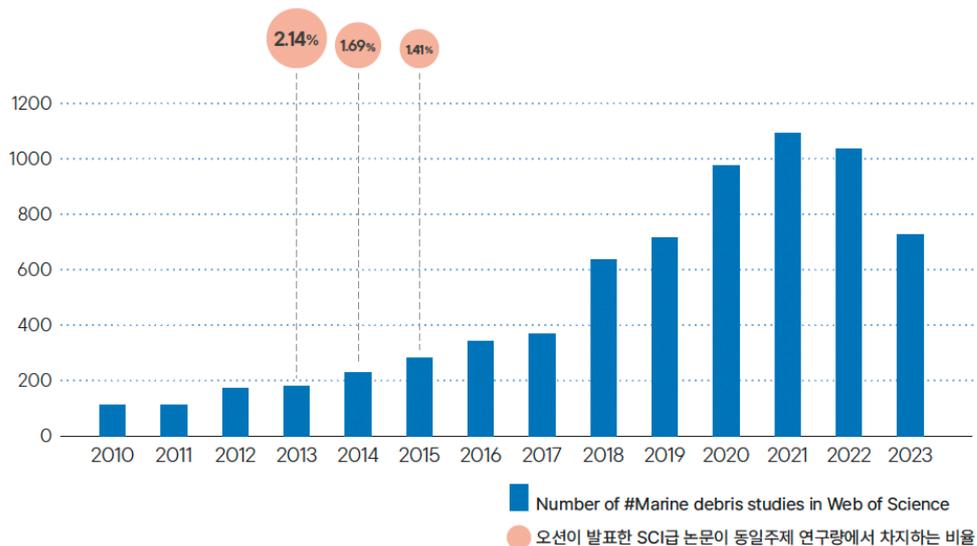
2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미국 과학정보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중 엄격한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별한 저명 학술지를 말하며,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SCI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3 KCI(Korean Citation Index)급 논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합니다.



해외에선 해양쓰레기 관련 논문 발표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KCI 등재 논문 기준 국내의 해양쓰레기 연구 발표량은 연평균 1.67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션은 2012~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7개의 연구를 KCI에 등재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한 KCI 등재 논문 수의 50% 수준으로 오션의 높은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지식 생산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국제] 해양쓰레기 주제 SCI급 논문 발표량(전체) 중 오션의 논문 발표량 비율추진 성과



[국내] 해양쓰레기 주제 KCI 등재논문 발표량(국내 전체) 중
오션의 논문 발표량 비율

50% (2012~2023)



연구 생산물이 하나의 선행 연구가 되어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되는 것도 연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오션이 KCI에 등재한 논문의 FWCI⁴는 평균 1.53으로 전세계 평균대비 53% 더 인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션이 생산한 자료가 해양쓰레기 지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과학기술 분야 비정부기구로 승인⁵

오션은 2021년 12월 UNEP로부터 비정부 기구로 인증을 받았고, 2023년 8월에 과학기술 분야 단체로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로는 국내 유일한 승인 단체로, 해양쓰레기 분야의 과학적 성과를 인증받은 것입니다.

UNEP 내 시민사회 단위인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 협회 등은 각자의 연구, 전문성 및 시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UNEP의 과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롭게 다루어야 할 환경 문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약 800여개 비영리 단체가 UNEP의 공식적인 협의 지위, 즉 의견 조언 및 관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위급 환경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오션은 전문성과 경

4 FWCI(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같은 출판연도, 주제분야, 논문 형태에 따라 인용을 측정하여 정규화한 인용지수로, 지수가 전세계 평균값 1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용되었다고 해석합니다.

5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연합(UN) 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관련 종합 조정 기관입니다.

힘을 제공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환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공동생산에 기여한 성과

광범위한 해양쓰레기 분포와 배출원, 피해 사례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시민과학과 협력의 방식을 연구에 활용

오션은 시민과학 전문성에 기반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지향해왔으며, 시민들이 생산한 자료가 유의미하도록 설계하고 그 결과를 공익을 위해 가치있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션이 주도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교육홍보에 활용하는 등 시민과학의 결과물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합니다.

오션의 연구 생산물 145건 중 52건(35.8%)이 시민과학을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였거나 활용하였으며, 이 중 9건(17.3%)은 논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오션의 시민과학 기반 연구의 출판율은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시민과학 연구 출판율과 비교했을 때 26%p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오션의 연구 전문성과 신뢰 수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학 기반 연구의 출판율 비교



연구 방식별 비율



[참고] 해양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민과학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과학자와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인 시민과학은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과 유럽 시민과학백서(White Paper on Citizen Science for Europe)는 시민과학을 각각 ‘전문적인 과학자와 과학기관의 지도 아래 혹은 함께 협력하여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과학 작업’,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지적 노력, 배경 지식, 도구나 자원을 가지고 과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 해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분포나 발생원인, 추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지역, 국가 또는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공간의 데이터가 미시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만으로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시민과학의 효용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오션은 시민들이 해양쓰레기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 직접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과학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와 배출원, 오염과 피해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 대상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 개발에 기여합니다.

[참고] 오션의 시민과학 프로젝트 과정



증거기반 정책 결정 촉진 성과

현장에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계획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

과학적 데이터 제공 및 지식생산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단순한 주장이나 입장 표명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족한 정보로 인한 갈등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환경의 변화를 쉽게 찾아내어 대응이 시급한 문제들을 파악하거나 정책의 효과성을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션은 시민과학 데이터를 통해 새로 발견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사용 시차를 줄여 시의성을 확보하고, 실제 현장의 해양쓰레기 분포와 피해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성을 놓지 않습니다.

생산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수용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정책 및 제도개선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습니다.

정책분석 및 개발 연구와 관련 있는 정책 과정



정책 결정 촉진 성과 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스티로폼 대형쓰레기 감소에 기여

오션은 2008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연구 참여를 통해 스티로폼 부표와 어업용 밧줄이 국내 해안 쓰레기의 주범임을 확인하고, 이후 스티로폼 부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사연구, 관리 정책 개발,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여로 2013년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2014~2018)’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밀도 부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어업인이 폐부표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사업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

스티로폼 부표 금지 및 인증(친환경) 부표로 완전 대체 정책화 과정



칙이 개정되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도록 어장부표 규격이 규정되었습니다.

정책 변화는 실제 스티로폼 쓰레기 문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스티로폼 부표가 현저히 감소하여 2022년 대형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스티로폼 부표가 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안쓰레기 개수 순위 10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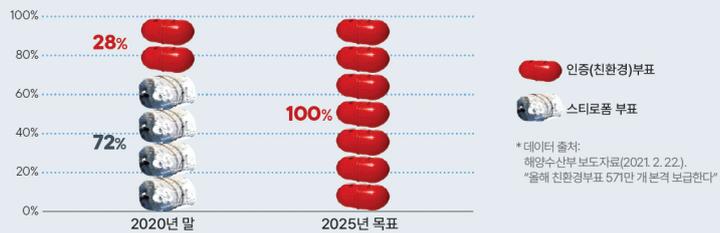
[참고] 해양수산부의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정책

스티로폼 부표 하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서져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저렴하지만 낮은 내구성으로 쉽게 파편화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미세한 알갱이로 부서지게 되면 수거나 제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말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28%를 차지하던 인증부표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동시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3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어장 내 모든 부표가 인증 부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부표 보급현황 및 목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의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장조사 및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장조사 및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장조사 및 시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장조사 및 시료 분석



정책 결정 촉진 성과 ②:

다도해상공국립공원 일부 낚시 금지구역 설정

국내 최초 갯바위 생태 휴식제 시행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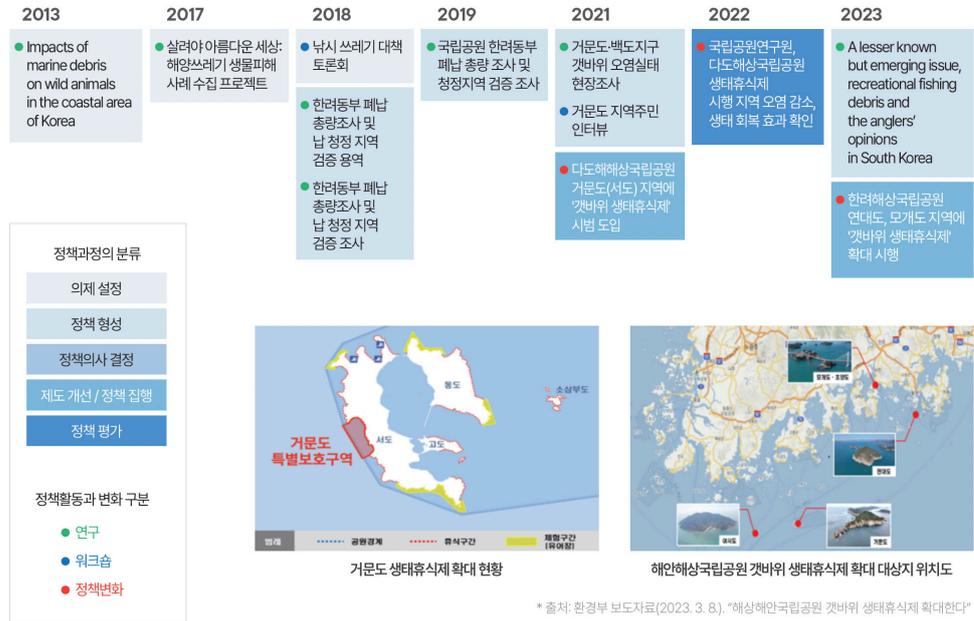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낚시꾼은 낚을 바위 틈에 끼워 사용합니다. 낚시 활동 후 회수되지 않은 낚추를 해양 생물이 먹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바닷물에 노출된 낚은 해양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낚추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데 골칫거리였고, 오션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조사 연구를 통해 낚 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여 연안 낚시쓰레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거문도(서도)에 대해 생태휴식제(낚시 금지구역 설정)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낚시꾼의 출입을 일 년간 제한한 결과 갯바위 종합오염도가 37% 감소 하였고, 갯바위의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도 이전에 비해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생태휴식제 적용 범위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나아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섬 세 곳(여서도, 모개도, 연대도)도 생태휴식제 시행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정책화 과정



정책 결정 촉진 성과 ③:

낚시면허제 도입 * 정책형성 단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낚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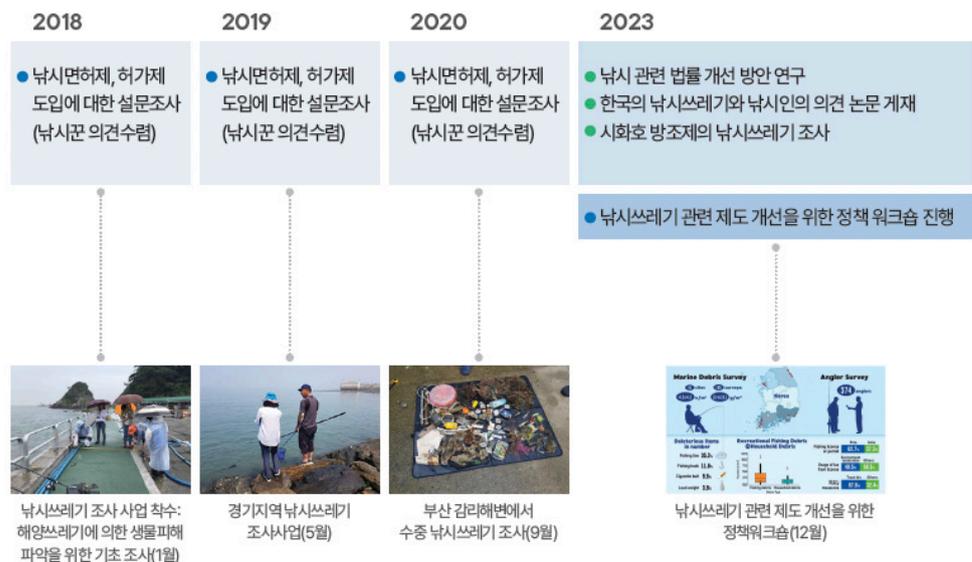
국제적으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쓰레기 등은 잘 알려진 문제이지만, 취미로 하는 낚시에서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션은 2013년 해양쓰레기가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낚시쓰레기가 가장 심각한 생태계 피해의 원인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낚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낚시 전문 채널 방송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대상 학습지와 홍보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오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낚시터(경기, 인천, 부산, 경남, 전남, 강원)에 버려진 낚시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조사하고, 낚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쓰레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간의 연구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낚시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낚시인의 의견을 분석한 논문을 ‘해양 오염’ 국제학술지에 실었으며, 계속해서 과소평가된 낚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높이고 대응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낚시면허제(가칭) 정책화 과정



최초로 공개하는 오션의 모든 연구원 이야기 (1)

오션 연구원들이 직접 전하는 열정과 노력

도파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parado@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홍선욱 대표를 중심으로 12명의 연구원, 3명의 객원연구원, 1명의 예술감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이 어떤 동기와 사연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이 인터뷰를 통해 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션의 연구원들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수행하며,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오션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뉴스레터에 게재될 이번 인터뷰는 오션의 홍선욱 대표와 이종명 소장을 비롯하여 모니터링 연구팀과 데이터 연구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만나보도록 하자.

오션, 홍선욱 대표의 이야기



오션을 설립하게 된 이유

200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진행하던 해양쓰레기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이 문제를 접했어요. 당시 전국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해양쓰레기모니터링 사업을 담당했는데, 연구소-시민단체-정부 간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 다음의 지구적 환경 난제가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해양구조단 해양환경정책국에서 5년 일한 뒤, 2009년 오로지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집중해야겠다는 의지로 오션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션에서 일하며 느낀 보람과 경험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것이 직업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그 저 지역에서 우리 바다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션을 설립하고 연구 사업도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일을 통해 심각했던 오염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떻게 운영하나?

연구사업비로 운영하고 기부금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조직으로 연구사업을 작게 수행하며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해양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인 환경 난제로 대두되며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체감하며 서서히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젊은 인재들이 함께하면서 든든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연구사업을 통해 이 인재들의 인건비와 오션 운영비를 감당합니다. 정부 보조금 없이 오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인 회비와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에만 투입하고 오션의 지원이 필요한 협력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통영일까?

저는 거제도에 살고, 공동 설립자인 이종명 박사는 사천에 거주합니다. 두 사람의 출퇴근을 위해 중간 지점인 통영에 오션을 설립하였죠. 통영은 지속 가능발전교육 거점 도시로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은 교육도시여서 오션의 설립 취지와도 잘 맞았습니다. 15년간 통영을 기반으로 전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협력팀을 위한 서울 사무소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션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연구소와 시민단체의 성격이 융합되어 있으며, 2030과 4050의 비율이 2:1, 남녀가 1:2, 문과와 이과가 1:1, 통영 출신이 아닌 전국에서 모인 인재로 이루어진 건강하고 다양성을 갖춘 조직입니다. 모든 운영비를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공익만을 추구하는 오션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기부하시고, 후원으로 응원해 주세요.

해양쓰레기 연구소, 이종명 소장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저는 홍선욱 대표와 함께 오션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환경단체에서 일했는데, 다양한 환경 문제부터 시민사회연대 활동까지 너무 많은 분야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자신도 없어질 때쯤 홍선욱 대표가 나타나 해양쓰레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일을 해보자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션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유

오션을 만든 지 벌써 10년도 훌쩍 넘어 버렸네요.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해양쓰레기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션과 계속 함께 가야 할 이유

오션은 매우 실용적인 조직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는 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에 충실한 조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연구팀, 이종수 팀장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환경과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통영에 와서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것을 보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통영에 오션 사무실을 연 대표님의 권유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션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유

오션에서 일하는 데 가장 큰 매력은 연구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션에서 오래 일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매력이 있지만 한 가지 더 꼽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션에는 함께 격려하면서 공부하고 이를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하는 데 큰 기쁨을 줍니다.

나의 소개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에 쉽게 질리지 않습니다.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의 이런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연구팀, 앨리시아 로 연구원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저는 해양쓰레기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오션에 합류했습니다. 오션이 UNEP에 인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오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션에서 일하며 느낀 보람, 경험

오션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와 연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오션의 대형 및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국 전역

을 돌아다니고 샘플링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작업은 지루하고 피곤하지만, 연구와 시민 인식,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외국인으로, 오션에서 일하면서 한국 문화와 업무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모두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 플라스틱을 줄이고, 젊은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니터링 연구팀, 한국인 연구원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해양환경과학을 전공했지만 김령규 연구원을 통해 오션을 알기 전까지는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기회가 생겨 오션 사무실을 견학하고 홍선욱 대표님과 이야기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오션의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대표님께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셔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션과 함께하는 이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해양쓰레기 감소'라는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옆에서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외부 단체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깨끗한 바다 더 나아가 깨끗한 지구를 이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연구팀, 정호승 팀장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저는 바다의 푸른 색깔부터 비릿한 냄새까지 바다가 가진 모든 면을 좋아합니다. 이런 멋진 바다에 해가 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오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션과 함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오션과 함께 일해온 경험이 저에게 특별한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 주어, 이처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션에서 일하며 느낀 보람, 경험

오션이 하는 일과 발맞춰 해양쓰레기 관련한 여러 연구에 참여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차근차근 새로운 내용을 배우며 노력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해양쓰레기 전문가로 활동하며, 더 많은 여러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션에 대해 몇 마디 한다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IT 기술 등을 업무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 노력하는 환경도 새롭습니다.

데이터 연구팀, 김령규 연구원의 이야기



오션과 함께 하게 된 사연

해양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해양환경과 빅데이터, AI의 융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의 추천으로 오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션이라면 제가 꿈꾸던 연구 분야에서 제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션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이유

대표님과 연구원분들이 모두 좋으시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션과 오랫동안 함께하여 오션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오션에서 일하며 느낀 보람, 경험

업무에 시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하면서 오션에서 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매우 컸습니다.

오션 홍보 책자 발간하다

리플릿 하나로 오션에 대한 모든 것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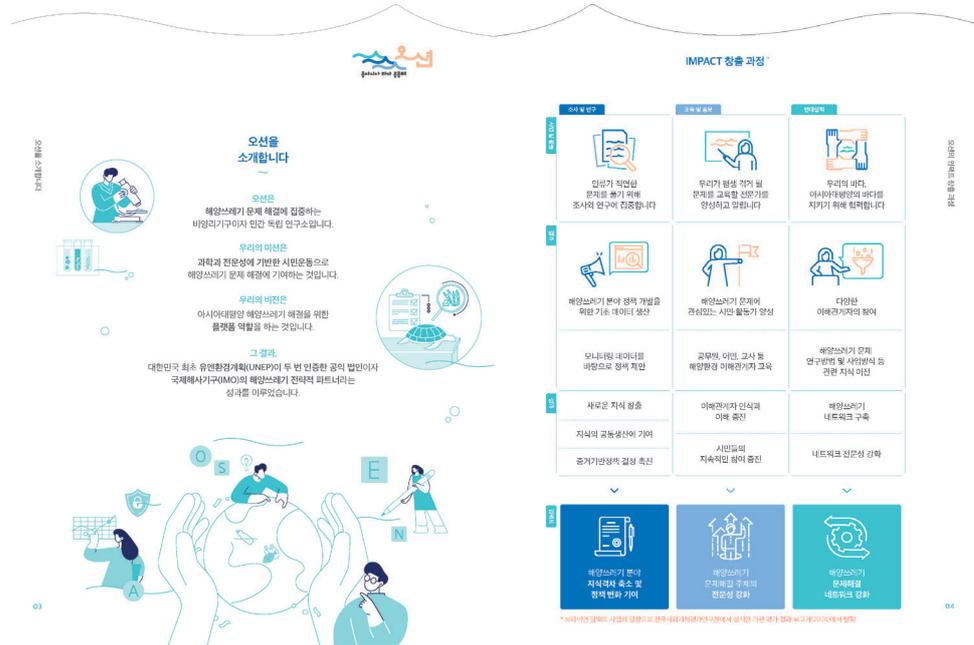
도파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parado@osean.net

최근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국/영문 홍보 리플릿을 발간하였다. 14면짜리 지면에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오션의 헌신적인 활동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접근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비영리 독립연구소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오션 홍보물 1-2면]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연대 협력의 다섯 가지 주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양 환경 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오션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오션 홍보물 3-4면, 미션, 비전과 임팩트 창출과정]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 생산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전국 주요 낚시터의 쓰레기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낚시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정책 선호를 분석한 바 있다.

시민과학자 양성 및 교육

오션은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6,334명의 시민이 해양쓰레기 시민과학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성과와 국제적 인정

오션은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두 번 인증받은 공익 법인이며,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해양쓰레기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오션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성

을 입증한다. 오션은 또한 SCI급 논문 19건, KCI 등재 논문 10건 등 총 145건의 연구 산출물을 통해 해양쓰레기 분야의 발전에 학술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

오션은 국내외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1개국 35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제연안정화(ICC)’ 행사를 주관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3. 오션 홍보물 5-7면, 왼쪽부터 조사·연구의 임팩트, 교육 및 홍보의 임팩트, 연대협력의 임팩트]

미래를 향한 비전

오션의 비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외에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참여 방법은 홍보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오션 홍보물 8-9면, 바다기사단, 열일캠페인, 개념낚시, 국제연안정화 참여방법]

오션의 활동은 현재의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오션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림 5. 오션 홍보물 10-11면, 오션의 후원하기 안내]

오션의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오션은 어떤 곳인가! 단 1분 30초만에 알아보세요!

도파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parado@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국문과 영문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오션의 활동을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림1. 오션 홍보 영상의 도입 화면]

오션은 꺼져가는 바다의 가능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로, 2009년 10월 두 연구원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양쓰레기로 얼룩져가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자 했고, 이러한 열망은 곧 오션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림 2. 오션의 설립 설명 화면 왼쪽 해양쓰레기 연구소장 이종명, 오른쪽 오션 대표 홍선옥]

오션의 전문성은 정부의 정책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림 3, 4. 왼쪽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환경계획 2번 인증 비영리 기구 설명 화면, 국제해사기구 (IMO)의 전략적 파트너 민간 연구기관 설명 화면]

또한 공무원, 교사,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교육을 진행하며,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 5. 시민과학자 양성 설명 화면]



[그림 6. 국내외 해양쓰레기 전문가 교육 훈련 설명 화면]

오션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쓰레기 대응 중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바다와 지속 가능한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개인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바다와 지구를 지키는 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림 7, 8. 오션 홍보 영상의 일부 화면]

오션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오션의 홍보 동영상은 이러한 여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내며, 우리의 바다를 위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림 9. 오션 홍보 영상의 일부 화면]

오션의 이러한 노력은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오션이 이끄는 변화를 통해 우리의 바다는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션의 홍보 영상은 이들의 헌신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션의 여정에 함께하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16년 결과, 해양과학학술대회에서 발표

5월 23-2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연합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이종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jongsulee@osean.net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에 참석하여 국가해안 쓰레기 장기 모니터링 성과 및 시사점 발표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연합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국내 6개 해양 관련 학회(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연구한 성과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융합과 확장’이었다. 날이 고조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 해양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의 대응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오션에서는 이종수 책임연구원과 홍선욱 대표가 참석해서 ‘국가해안쓰레기 장기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16년간 단 한 번의 빠뜨림도 없이 진행되어 온 정부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였다. 해양쓰레기 분야의 특별 세션도 있었는데 한국해양학회에서 마련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발생 및 환경 거동이 그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강, 대기, 선박,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하고 이들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여러 편의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그동안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인별 발생량을 추



[사진 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어 우리나라 연구팀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대한 깊이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오염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이다. 학회를 통해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토 활발히 진행되기를 고대한다.

‘제29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오션, 낙시쓰레기의 심각성 홍보

한국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glhan@osean.net

부산광역시와 부산해양경찰서가 주관한 제29회 바다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영도구,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와 민간 기업·협회, 시민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 다이버들은 페타이어와 페어구 등 각종 침적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주)코아이는 해상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로봇을 선보였다.

육상에서는 플로깅과 해양환경보전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출발해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 걸으며 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해양환경보전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과 낙시쓰레기 포스터를 활용해 바다에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청정 바다 조성을 위한 시민 실천 사항을 홍보했다.



[사진 1. 낙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오션]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낚시쓰레기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오션은 행사 현장에서 낚시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동물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시민에게 낚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다. 오션은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고등학생부터 예술가까지 120명에게 강의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sean.net

지난달에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의를 4회 있었고, 100여 명의 다양한 시민을 직접 만나고 왔다. 통영에 있는 총렬여고 환경동아리 학생 30명, 부경대에 있는 영남씨그랜트 센터의 대학생 30명, 남해에 있는 남해군자원봉사대학에서 40~60대의 지역 자원봉사 경력자 30명,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와 시민의 역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나이와 지역, 활동과 관심 분야에 관계없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증거와 데이터로 소개하고, 지구가 직면한 이 어려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사진 1. 영남씨그랜트센터]

5월 27일, 영남씨그랜트센터-한국수산자원공단 대학생 동아리와 함께하는 「해양교육정화활동」의 특강에서 '플라스틱 위기에 맞설 시민과학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바다기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사진 2. 총렬여고]

6월 5일, 오션을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는 김호찬 회원(총렬여고 교사)의 초청으로 통영 총렬여고 동아리 30명에게 ‘플라스틱 오염과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3. 남해군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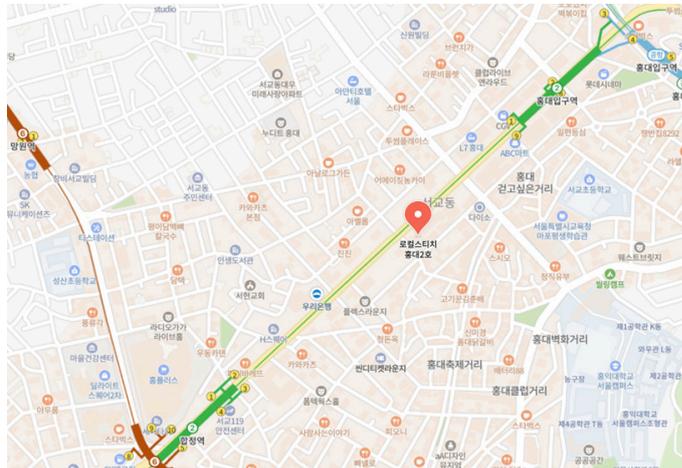
6월 12일, 경남환경교육원의 의뢰로 남해군자원봉사대학에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해온 시민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양플라스틱오염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어업쓰레기와 낚시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강의를 진행했다.

오션 국제협력팀, 서울에 업무공간 마련

이유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yunalee@osean.net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의 국제협력팀은 서울 근무자가 3인으로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서교동에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통영 소재의 오션 본사와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통영 사무실 근무자의 서울 출장 시 업무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협력팀의 해외 출장 및 국내외 파트너 응대에 있어 조금 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초급전문가(YP) 수행기관으로서 활동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업무공간은 시민 활동 친화적인 국내 공유오피스 브랜드에 마련하였으며 찾아오는 길은 아래와 같다.

<오션 서울 사무실 찾아오는 길>



- 주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0
- 교통수단별:
 - (지하철)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도보 5분, 합정역 3번출구에서 도보 8분
 - (버스) 서교동 정류장
 - 간선: 271, 602, 603, 604, 761, 921
 - 지선: 5712, 5714, 6712, 6716, 7612
 - 광역: 3100, 1000, 1100, 1101, 1200, 1300, 1301, 1302, 1400, 1500, 1601
 - 공항버스: 6002
- 주차: 건물 정면 사설 주차장 이용 가능

베트남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지지, 가치-신념과 해양쓰레기 위험 경험에 달려

김혜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염 연구원 | hyejukim@osean.net

원문

Ngoc, Q. T. K., Xuan, B. B., Börger, T., Hien, T. T., Van Hao, T., & Nghiep, V. K. 2024. Exploring fishers'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and support for policies to combat marine litter in Vietnam.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 116143.

제519회 오염 정기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어민들의 친환경적 행동 의지와 해양쓰레기 퇴치 정책에 대한 지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베트남 연구팀의 논문에 대해 공부하였다.

해당 연구는 베트남 어민 369명을 대상으로 가치-신념-규범(Value-Belief-Norm; VBN) 이론 조사를 시행 및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팀은 어민들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와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가치, 신념 및 규범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어민들의 친환경적 행동과 정책적 지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베트남 남부 해안의 세 지역인 푸옌, 칸호아, 닌투언에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들은 해양쓰레기와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으로, 어선 수가 많아 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조사를 위해 369명의 어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어민의 친환경적 행동과 정책 지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치-신념-규범(Value-Belief-Norm; 이하 VBN) 이론을 활용하였다. VBN 이론은 환경 행동에 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로, 친환경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베트남 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 결과, 어민들의 생태적 가치,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가 모두 친환경패러다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패러다임, 위험 인식, 책임 지각, 개인 규범 간의 각각의 관계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집단에서는 가치, 신념, 규범과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위험인식이 친환경적 행동과 정책 지지를 이끌어낸 반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신념과 규범이 결합하여 친환경적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를 이끌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집단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어획물 손상, 시간 낭비, 어구 손상, 프로펠러 손상, 선체 손상 등)을 경험하는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의 어민들은 해양쓰레기가 어족 자원과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환경 책임 참여 의도를 보인 반면, 집단 2의 어민들은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즉, 집단 2의 어민들은 가치 부문에서 더 높은 지수를 보였고 그 결과 친환경패러다임 지수가 더 높았으며, 해양쓰레기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그 결과로, 집단2 어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고 해양쓰레기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했던 것이다.

연구 결과는 어민 대상 정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자 할 경우, 어민들의 가치, 신념, 규범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절반 이상의 어민들이 가치, 신념, 규범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생태적, 이타적, 이기적 가치와 같은 가치적 요소가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해양쓰레기가 어업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정책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종명 연구소장은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VBN 이론이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개발에서

어민들의 친환경 참여를 조사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향후 어민 대상 교육 개발에서 어민들이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대나무 바구니 VS 비닐봉지 - 베트남 무이네(2)

김상수 | 사진가, 해양수산칼럼니스트 | docusea@naver.com

판티엣(Phan Thiết)은 빈투언성(Binh Thuận Province)의 성도이다. 넉넉한 수산자원을 품은 판티엣만(灣)에 위치한 덕에 일찍부터 베트남 동남부의 수산업 중심 도시로 여겨져 왔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글의 중심이 되는 무이네는 행정상 판티엣 시에 드는 14개의 방(坊; 우리 동에 해당)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수산업과 더불어 판티엣시에서 내세우는 또 하나의 해양산업은 제염업이다. 소금은 판티엣의 지역특산품 대접을 받으며 연간 1,600만 톤 안팎을 생산해내는 베트남 전통어간장 느억맘(nước mắm)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사진 1. 2024년의 무이네 피싱빌리지 해변어시장. 백사장을 점령한 해양쓰레기 위에서 각자의 어획물을 갈무리하는 무이네 아낙네들. 해양쓰레기 대부분은 어획물을 담아왔다가, 하역 후 내버린 페비닐이다.]



오션 뉴스레터에 게재될 원고를 위해 그동안 촬영해 놓은 베트남 어촌의 디지털 사진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며 살펴보던 중에 불현듯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판티엣과 무이네 새벽 어시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왔던 대나무 바구니 구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만 10년 전인 2014년을 전후한 무렵부터다. 지난 2008년과 그 이듬해에 이루어진 취재 때만 해도 생선 등 어획물을 선상정리하거나 운반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대나무 바구니나 플라스틱 바구니였던 것에 비하자면 2014년 이후부터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해도 좋을 정도로 비닐봉지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었다.



이런 상황은 내가 판티엣과 무이네를 재방문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의 어촌에서 천편일률적이다시피 비닐봉지가 대나무 등 바구니 역할을 대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나무는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목재 중의 하나이고, 그런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일을 생활 방편으로 여기는 대나무 공예 마을이 여러 곳인데도 말이다. 이런 대나무 공예마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대나무 바구니나 소쿠리가 넘치게 생산되고 있음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닐봉지로 대신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하다.

[사진 2. 2009년, 느억맘용 작은 생선들을 가득 담은 채 판티엣 포구에 늘어선 생선바구니. 대나무 재질로 제작되었다]

[사진 3. 2009년의 판티엣 포구에 내려지는 대나무 바구니엔 어부들이 밤새 잡아내고 분류해낸 어획물이 담겨있다]



[사진 4. 2009년의 판티엣 포구. 물론 그때라고 해서 플라스틱 바구니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어촌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진 5. 2009년 판티엣 포구. 대나무 바구니 운반선과 포구 한쪽에서 재사용을 위해 대나무 바구니를 세척하는 아낙네들]

[사진 6. 2008년의 무이네 어촌 앞 해변어시장. 방수천막천 위에서의 어획물 정리]

[사진 7. 2009년 9월의 무이네 어촌 앞 해변어시장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수산물. 이 상태로 어선에서 부려진 것이다]

[사진 8. 베트남 중부 대나무공예마을의 생선바구니 제작 모습]



[사진 9. 2014년 3월의 무이네 어촌 앞 해변어시장 앞바다에서 어획물이 그득 담긴 비닐봉지를 운반하는 어부들을 처음 봤다]

[사진 10. 2014년 9월의 무이네 피싱빌리지 해변어시장. 귀항 후 먼 바다에 묘박한 어선에서 비닐봉지 채 넘겨준 그대로 어획물을 대나무배에 받아오고 또 그대로 백사장까지 양륙하니 이만저만 편한 게 아닐 것이다]

[사진 11. 2014년 무이네 어촌 앞 해변어시장 백사장에 쌓여있는 어획물 비닐봉지]

우선 어부들이라면 대나무든 플라스틱이든 부피가 커다란 바구니에 비해 비닐봉지는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좁다는 게 장점일 듯하다. 가뜩이나 비좁은 어선에 켜켜이 쌓아놓은 큼직한 바구니는 어획물로 채워 넣기 전까지는 영 성가시기만 한 존재가 아닌가.

반면, 투명한 비닐봉지는 우선 값이 싸다. 게다가 어선 한구석에 놓았다가 조업이 끝난 후 잡아낸 어획물을 채워 넣으면 속이 흰히 내비치니 어종별 구별도 쉽고, 앞바다에 도착해 운반선인 바구니배로 옮겨 실을 때나 백사장에 부러놓을 때도 얼마나 편하겠는가?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승선어부들이 조업 후 선상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깔끔하게 갈무리해왔으니, 다른 봉지에 덜어서 소매로 팔아도 좋고 도매로 통째 팔아도 좋을 것이다.



[사진 12. 2024년 4월, 비닐봉투에 담긴 어획물을 오토바이 가득 싣고있다]

[사진 13. 해양쓰레기가 널려있는 2024년의 무이네 피싱빌리지 해변시장 전경]

문제는 비닐봉지의 뒤처리다. 사용하기 편한 만큼 버리기도 손쉬운 모양이다. 판티엣 포구 어시장에서나 무이네 피싱빌리지 앞 해변 어시장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담겼던 어획물을 쏟아낸 뒤에는 ‘평소의 습관’대로 여기서 훑, 저기서 훑 하고 내버리는 일을 일상인 듯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쥐꼬리만큼의 죄의식도 없고, 공중도덕이나 관광객 등 남의 이목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채로 마구잡이식 투기(投棄)를 일삼는 듯하다.

그 결과로 무이네 피싱빌리지 어시장 사람들은 백사장 위를 뒤덮다시피 한 폐비닐 쓰레기더미 위에서 생선을 다듬고 분류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지만, 함부로 버리고 방치하는 상황은 여전히 반복된다.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 뉴스를 소개합니다.

매년 집중호우 뒤 바다·댐에 ‘쓰레기섬’...정화주간 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18900530?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 2024.06.17 | 이재영 기자

고흥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108>

[출처] 데일리한국 | 2024.06.10 | 정상명 기자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맹활약, 청정바다 만든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08>

[출처] 이코리아 | 2024.06.14 | 윤수은 기자

해상 물류·해양 쓰레기 문제, AI로 해결하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0518025506101>

[출처] 부산일보 | 2024.06.05 | 이상배 기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션!

오션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소개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대학생 동아리와 해양교육정화활동 추진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605500255>

[출처] 메트로신문 | 2024.06.05 | 이도식 기자

수산자원공단, 부경대와 '바다식목일' 기념 해양 교육·정화 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7138?sid=102>

[출처] 데일리안 | 2024.06.05 | 장정욱 기자

부산해경, 바다의 날 기념 '수중·연안 정화와 캠페인' 펼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137>

[출처] 국제뉴스 | 2024.05.28 | 김옥빈 기자

하반기 YP 채용

KOICA 국별 협력 사업 YP 채용

YP(Young Professional) 1명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일할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KOICA 국별과제 사업명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사업 (해양환경분야)

근무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서울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

담당업무

YP(Young Professional), KOICA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 협력 업무 제반에 참여하며 사업의 수행 관련한 행정 및 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근무기간

2024년 8월 1일 - 2025년 2월 28일 (7개월)

자격요건

- 1)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 가능
 - 영어우수자 (회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 수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우대조건
 - 사회배려층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우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양)환경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외 ODA 사업 또는 환경 관련 사업 경험 보유
 - ODA 자격증 보유자
 - MOS 자격증 보유자

심사절차

서류전형 → 직무/역량 면접 → 채용
*결과 개별 안내

채용일정

- 24. 6. 10 - 7. 7 서류 접수
 - 24. 7. 8 - 10 서류 심사
 - 24. 7. 11 - 12 서류 결과 통보 및 면접 안내
 - 24. 7. 15 - 18 면접 심사
 - 24. 7. 22 - 25 채용 결과 발표 및 채용
- *적격자 채용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첨부 양식 사용) 또는 영문 이력서(Cover Letter, Resume) 1부 (자유양식)
- 보고서 작성능력 평가를 위한 본인 작성 논문, 보고서 등 참고자료 국문 또는 영문 1부 (분량 및 형식 자유, 공저일 경우 본인 작성 부분 표기)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양식 사용)

제출방법

- 채용 담당자 이소영 연구원 (soyeong@osean.net) 앞으로 송부
- 지원서류 일체는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에 첨부하고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2024 하반기 YP 지원서류_000(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지원자의 이력 관련 제공받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력 허위 기재 및 중빙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급여 및 복지

- 기본급 2,060,740 (세전)
- 4대보험 적용
- 월 1회 해탈데이 진행, 10월 마닐라 출장 지원, 주1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논문 세미나 참여, 오전 8~10시 시차출퇴근제 실시.

심사 및 기준

업무 능력 및 국제개발협력 업무 소양 종합 심사

문의

- osean@osean.net
- 담당자: 이소영 연구원

※ 오션의 미션: 과학에 기반한 시민운동으로 아시아태평양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
www.osean.net

- 오션 홈페이지

<https://osean.net/>

- 지난 YP 후기 보러가기

<https://osean.net/activity/?idx=17344547&bmode=view>

- 서류 제출 방법

채용담당자 : 이소영 연구원 (soyeong@osean.net) 앞으로 서류 작성 후 송부

새로운 후원자 소개

환영합니다!

이번 달 새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가입인사를 공유합니다.

보다 뜻깊은 활동으로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고개희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개희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홍선욱 대표님~~~

수퍼울트라 캡짱 멋지십니다~~~

오선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5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5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월 회비를 내주신 분들

강대석 강동웅 강륜화 강민구 강성길 강재영 강정훈 고문현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권단비 권미양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나리 김나령 김도근 김동원 김령규 김민정 김민지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승규 김아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규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의태 김재진 김재아 김정윤 김종덕 김종범 김준형 김지혜 김지환 김진일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지 김호상 김호찬 김환희 김효정 김훈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노희정 도영준 도파라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경숙 문명희 문효방 민병걸 박경규 박경화 박경희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미선 박솔 박연자 박영규 박요섭 박윤경 박은주 박은주 박은지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배창수 변효진 서은희 서정미 선호경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어진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민주 신소린 신재영 신춘희 심원준 심이나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안지연 양명기 양수민 예수진 오경희 오기택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유병덕 유신호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슬아 윤현정 은자경 이강만 이경아 이경희 이광수 이광재 이동경 이동규 이두형 이문숙 이보경 이석중 이순천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나 이유리 이인숙 이인식 이재환 이정민 이정민 이정은 이정미 이정현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주언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일점오도씨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진아 임채원 임효혁 임효희 임희근 장미 장원근 장윤정 장은영 전일구 전현수 전형석 전해영 전홍선 전홍표 정미현 정민경 정수경 정승애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문경 조성수 조성익 조영숙 조현우 조현국 조현숙 조홍연 진주 채정연 채홍기 최나현 최명애 최승만 최시열 최영석 최용준 최윤숙 최은정 최주섭 최지연 최지현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허인숙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규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황청희 황혜진

5월 후원해주신 기업과 단체

정기후원	드림오션네트워크, (주)리와인드, (주)허니랩, 코스파(주),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오션사이언스, (주)샤인임팩트, 유한회사 온테크, 거제해녀아카데미
일시후원	법무법인 더함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세법 상의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회원 가입 및 기부를 환영합니다.
OSEAN의 취지에 공감하고 회원이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

후원 정보

회원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 osean@osean.net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53014)

Tel | 055-643-6381

Fax | 055-649-5228

인스타그램 | @osean_net

세미나 공지

제 525회 오션세미나

7월 2일 10:30 AM

(진행 언어: 영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109개 주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미세 플라스틱 인체 섭취량 증가와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로 절반으로 줄일 가능성

(Xiang Zhao and Fengqi You, 2024. Microplastic human dietary uptake from 1990 to 2018 grew across 109 major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countries but can be halved by plastic debris removal,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58:8709-8723)

제 526회 오션세미나

7월 16일 10:30 AM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4의 주요 내용과 결과

(UNFCCC 2023, Revised draft 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UNEP/PP/INC.4/3))

회의실 링크

<https://us02web.zoom.us/j/83042475968>

암호: 1234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참가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3-6381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이유리, 엘리시아 로, 도파라, 이유나, 김령규, 한국인, 김혜주, 이소영, 윤승철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발행인	홍선욱	편집인	이종명	디자인	FREEVIEW STUDIO
전화번호	055-643-6381	인스타그램	@osean_net		
홈페이지	www.osean.net	바다기사단 데이터 플랫폼	cloud.oceanknights.net		
이메일	osean@osean.net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53014)		
카페	cafe.naver.com/osean				

저작권은 오션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171호 2024년 6월호, 이종명 (편집)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